



# 행방 묘연한 400억원 추적 본격화

## 비자금 조성·조직폭력 유입 가능성 중점 게임 심의·등급분류 외압 여부 집중 조사

사행성 성인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별수사팀 구성 이틀만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관련자 출구금지, 관련업체 재산 가압류 등 잇단 조치들을 보는 법조인들은 전에 없는 수사 속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거둬들이는 900억원의 수익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400억원의 행방을 추적, 로비 자금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게임심사와 상품권 의혹 정조준=검찰은 우선 영등위와 게임개발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등위 심의 관련 비리 의혹과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 및 게임기 등급 분류 심사 과정의 로비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과 유통망 확보 과정의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등 상품권을 둘러싼 비리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4년 인준된 22개 상품권 업체의 심사자료와 2005년 8월 이후 최근까지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자료 일체와 회계자료, 문화부 및 업체들과 사이에 오간 e-메일 등을 압수해 업체 선정을 둘러

싸고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통망 확보 과정에서 조력 제공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다. 상품권 관련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광복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수사는 이밖에 업체들의 담보능력 심사를 맡은 서울보증보험과 민간법인 게임산업개발원을 상품권 지정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문화부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상품권 비리가 사행성 오락산업이 창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면 영등위의 부실한 심사는 사태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도 칼날을 댔다. 실제 영등위 간부가 브로커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브로커의 부탁대로 한 온라인 게임프로그램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는 진작부터 예상이 돼 왔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급 분류를 받은 데로 비나 외압 등 부적절한 요소는 없었는지 집중 추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용처 불분명 400억원 행방 추적=검찰이 바다이야기 제작사인 에이원비즈와 판매사인 지코프라이미 거둬들이는 900억원의 수익 가운데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3일 오전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바다이야기' 오락기 사이로 압수물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 예금과 부동산 등으로 남아있는 500억원 안팎에 대한 법원의 추징 보전 허가를 받을 때 따라 이제 관심은 남은 400억원의 행방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사가 오락기 1대당 550만~770만원씩을 받고 팔아 모두 3천억대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약 9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코프라이미가 우전시스템을 인수하는 데 들어간 6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번 돈 가운데 340억원이

상의 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탈탈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등위 등급 분류를 통과, 게임기 시장을 평정하기까지 '로비 자금'으로 쓰인 돈이 있을 가능성을 유심하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상품권 유통망 및 게임장 관리에 개입한 정황이 짙은 조폭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검찰, 빨라진 수사 행보

## 문화부-영등위 진실게임 2라운드

문화부 前 담당과장 "제한삭제 요구는 규정 중복 때문"  
이경순 영등위장 "문화부 압력설 신빙성 있다"

게임 사행성 조장의 책임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간 진실 게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하고 있다. 문화부는 23일 오전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권장희 전 영등위 위원이 문화부에서 받은 공문을 통해 밝힌 '문화부 게임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전날 문화관광부의 해명 보도 자료 배포 이후 권 전 위원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반박이다.

김용삼 전 문화부 게임음반과장은 권 전 위원이 제시한 2004년 5월 10일자 문화부 공문 '게임 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작성 책임자로 "당시 이미 상위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영등위가 다시 규정에 집어넣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권 전 위원의 주장은 영등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권 위원의 개인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과장은 또 파친코와 파치슬롯, 카지노 기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물을 부가게임에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5조 2호)에서 이용불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나라당 '권 령형도박게임트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의 현장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권장희 전 영등위원의 주장에 대해 "체감하지는 않았으나 그분(권 전 위원이)이 제시한 문건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상당 부분 권 전 위원의 발언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등위가 문화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믿는다"는 질문에 대해 "당시 담당자가 그렇게 시인했으니 신빙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품용 상품권 '유통중단' 조짐

유통업체 매입 중지... 일부 가맹점 "못받겠다"

오락실 경품용 문화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유통업체가 매입을 잠정적으로 전면 중지하고 일부 가맹점이 이를 받지 않는 등 '유통 중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상품권 종합 거래업체 티켓나라(ticketnara.net)는 23일 오락실 경품용으로 공식 지정된 문화상품권 19종의 매입을 모두 잠정 중단했다.

이 사이트는 '스타', '가족사랑', '영화', '교육', '사랑나눔', '컬처랜드', '아바타', '세이브존', '시에스', '포켓머니' 등 14종의 경품용 상품권을 취급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미 입수된 물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액면가의 90~92% 수준으로 매입해 오던 '다음', '도서', '인터넷파크' 등 대형 업체들의 경품용 문화상품권이 이날부터 신규 매입을 일시 중단했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바다이야기' 문제가 너무 시끄러워지면서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껴 한꺼번에 환

전하려 오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품용 상품권의 매입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에서 각종 상품권을 판매하는 한 업자는 "고객들이 백화점 상품권이나 구부상품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래 경품용 문화상품권의 취급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며 "경품용 상품권은 대부분 오락실 업주들과 환전 상 사이에 직거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경품용 상품권의 시중 거래가 거의 끊겼기에 따라 일부 오락실에서는 급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미 입수된 물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액면가의 90~92% 수준으로 매입해 오던 '다음', '도서', '인터넷파크' 등 대형 업체들의 경품용 문화상품권이 이날부터 신규 매입을 일시 중단했다.

'상품권 대란'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지 않기로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바다이야기' 책임론 확산

김한길 "정부는 대국민 사과 필요"  
김근태 "사행성 게임 확산 정책실패"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실세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행성 게임 확산에 따른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정책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근태 의장은 "사행성 게임 확산은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규정한 뒤 '발본색원(拔本塞源)'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 22일 김근태 의장이 주재한 비대위 만찬회동에서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비대위에 참석한 한 비대위원은 "이 정도의 정책 실패면 비리가 없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비대위 만찬에는 사행성 오락게임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정동채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공세를 수위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동생 일은 나와 전혀 무관"

김정길 체육회장

친동생이 부산에서 성인 오락실인 '바다이야기'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정길 체육회장은 23일 "막내 동생과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살고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서 이따금 만나지만 언젠가 성인오락실을 한다기에 당장 손을 떼라고 한 적이 있었으나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공인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인오락실에 동생이 연루된 사실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부산 연제구의 오락실에 대해선 "알아본 결과 10층도 넘는 먼 친척 동생이 운영주고 동생은 거기에 얼마정도 자본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신문에서 침소봉대한 기사는 완전히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3형제 중 맏이 김 회장은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자신의 손으로 막내동생을 구속시킨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IMF가 터진 직후 기소중지상태에서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당시 국회에서 전화를 받고 법대로 구속시키라고 말했다. 구속된 뒤 면회도 한 번 안갔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양도소득세 전문강의

양도소득세는 생활인의 세금! 아는 것만큼 이익!  
중요내용을 사례중심 강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음.  
나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연습

과정	강의시간 및 내용	개강
양도소득세	평일반(화·목) A반 14:00 - 16:00(120분)	9/5(화)
	B반 16:10 - 18:10(120분)	이후에는 매월 첫주 화요일(1개월과정)
주말반(토요일)	A반 09:30 - 13:00(3시간30분)	9/9(토)
	B반 14:00 - 17:30(3시간30분)	이후에는 매월 첫주 토요일(1개월과정)

세무회계실무 추후예정 회계원리,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추후예정(3개월과정)

○ 기타사항 ▶ 양도소득세를 알면 당신의 업무능력은 엄청 향상될 것입니다.  
▶ 수강신청방법 : 인터넷(www.naeyoung.com) 신청,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팩스 또는 전화 접수 후 수강료송금.  
정원초과자는 다음 달 수강대상자로 접수  
○ 송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19348 (예금주 - 이미지) FAX.062)234-0053

종합세무회계학원 ☎(062)234-0052 총정리파울스 옆(밀리오래 맞은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강
주책관리사	FINAL 문제풀이	9월4일(월)
공인중개사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9월 4일 (19:00~20: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9월 4일 (19:00~20:00)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당후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도청연락처: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65, 777  
 연세대학교 앞 3, 11, 27, 38, 55, 111, 118  
 여울리 가톨릭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 공무원 무료 문제풀이

9월 24일 서무직, 10월 1일 서울시대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 9월이론반 첫진도 개강 ▶ 9월 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 박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전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평생교육사, 원로수업연구원, 다양한 학종의 학습목표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한 질과 양의 학습자료와 그것을 실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비로써의 최고 강사진이 선결과제로 남달라야 합니다. 박내영 고시학원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박내영 고시학원은 교수진이 최고야!"

###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학/학내영 선생</li> <li>수학/임대성 교수</li> <li>생물/김지옥 교수</li> <li>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li> <li>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최병태 교수</li> <li>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li> <li>지구과학/박영순 교수</li> <li>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li> <li>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li> <li>물리/정영민 교수</li> <li>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li> <li>미술/김성희 교수</li> <li>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송옥 교수</li> <li>화학/이영철 교수</li> <li>일반사회/김영수 교수</li> <li>음악/박성진 교수</li> </ul>
---	---	---	---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6-2467

###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3일 9급서무직'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

## 7급 문제풀이반/이론반 9월 1일

박내영고시학원

2007년 9월 1일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